

정부 · 기관소식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2015년까지 국내 최초
「식품 전용 임대형공장」 설립!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술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15년까지 전라북도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 전용 임대형공장'를 설립키로 하고 설립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용수공급이나 폐수시설과 같은 식품산업 특성을 반영한 식품 전용 임대형공장을 설립하여 중소 식품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공장에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다양한 식품안전시설*을 갖추어 입주 식품기업의 제품이 HACCP인증이나 GMP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다.

임대형공장에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적인 기업과 IT·BT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식품기업을 우선 입주시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들어서게 되는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및 파일럿플랜트의 장비와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식품 기술 혁신(Innovation)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 전용 임대형공장이 설립되면 중소 식품기업이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식품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선도하는 강소 식품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시행
고의·상습적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시행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60여명을 운영하여 고의·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사법조치토록 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생산·유통중인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검역검사본부는 부정축산물의 유통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1.12.29일 국회심의를 통과하고 공포(법률 제 11161호, '12.01.17.)되었다.

농촌진흥청

화재예방과 폭설대비 축사관리

적정 전기용량 준수, 적설하중 고려한 축사설비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새해 들어 잦은 기습 한파와 산간지역 등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라 폭설로 축사와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축과 축사 관리 요령 등 농가에서 시급히 지켜야 할 사안을 긴급 당부했다.

〈축사 화재 예방〉

한파와 동시에 폭설도 자주 내리는 시점에 크고 작은 화재가 축사에서 간간히 발생해 농가의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어 겨울철 축사 난방과 관련한 축산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하는 축종을 살펴보면 양돈장 70%, 양계장 20%, 기타 10% 순으로 발생했는데 특히 화재 발생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사이가 60% 이상으로 발화 원인은 대부분 전열기구 과열에 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축사내부가 어느 정도 환기가 되는 개방된 축사보다는 밀폐된 축사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히 지붕의 단열이 부족한 돈사나 계사는 사육환경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밀폐한 축사라도 반드시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축사 내 높은 습도와 먼지를 축사 외부로 배출해 누전의 원인을 차단해줘야 한다. 따라서 기계적 환기시설은 반드시 최소 환기라도 가동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농장에 설치된 전선에 비해 전기용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와 노후화된 전선을 사용할 경우이므로 농장의 전기에 대한 점검은 아래와 같이 반드시 해야

한다. 첫째, 전기설비 점검과 개·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는 즉시 교체하며 차단기는 주 1회 이상 점검한다.

둘째, 전선 등 배선은 방수용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노후 전선은 즉시 교체하며 쥐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 공사를 실시한다.

셋째, 사용하는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며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나 고압세척기 등을 주변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재는 무엇보다도 농장에 설치된 전기안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적정 용량에 맞는 전열기구를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폭설에 따른 축사관리〉

축사관리로는 축사가 폭설피해를 입었을 땐 파손된 축사를 긴급히 복구하고 축사지붕에 과도한 눈이 쌓여있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축사가 밀폐된 돈사나 계사는 축사 안의 온도를 높여 축사 위의 눈이 빨리 녹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축사가 개방된 우사는 폭설 이후 축사바닥 온도 관리를 위해 벚짚, 톱밥, 왕겨 등을 준비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깔아주고 축사 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부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가축의 생산활동과 유지에 좋지 않으므로 사료는 평소급여량보다 10% 정도 늘려 급여해야 한다. 개방된 축사(우사)의 경우 가축의 피부에 묻은 눈, 비가 체온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

능한 빨리 제거해주고, 직접적인 눈에 의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지붕과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여 주는 차단벽을 설치해준다. 축사 내로 들어오는 셋바람은 가축의 질병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므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분만한 새끼들은 보온 환경관리를 잘 해주고 소독을 철저히 한다.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특정 질병(호흡기·소화기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투약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피해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기본 사육단위를 설정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자체하중과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을 고려해 자연재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비전선포식 개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지난 1월 3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사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에 따른 출범식 및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수산물산업인 결의대회, 새로운 사명 선언, 비전 선포,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출범식에 앞서 열리는 농수산물산업인 결의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올해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상호 기술·정보교류 확대, 고부가첨단 미래산업 창출 등을 다짐했다.

aT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물 산

업육성 전문 공기업’을 새 비전으로 제시하고 향후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1986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꾼 aT는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 가격안정, 수출진흥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aT는 식품 산업육성, 국가곡물조달, 농수산물사이버거래 등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올해 1월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꿨다.

김재수 aT 사장은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주도하는 동시에 농수산물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식품산업 육성, 주요 농수산물 수급안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2의 창립을 맞은 aT가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2012년도 민원만족도 제고 및 심사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1월 18일 대전에 위치한 중부지원 교육장에서 가공·유통단계 심사 업무 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고객만족도 제고 및 HACCP적용 품목 다양화에 따른 심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본·지원 간 심사기준 표준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이날 교육은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지정업체의 효율적 관리방안, 식용란 수집판매업 평가 기준, 검사관리 기준의 이해와 평가, 미생물 실험에 관해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기준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공·유통단계 심사관들의 심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사관들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본부, 201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기관 선정

환경측정서비스, 도축검사결과 농가 제공 등 고객중심 경영 우수사례 뽑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고평가 단계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167개 공공기관(공기업 21, 준정부기관 80, 기타공공기관 66)에 대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66개 기타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86.9점으로 전년대비 2.3점이 상승하였으며, 방역본부는 전년(93.1점)대비 3.6점이 상승한 96.7점을 획득하여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방역본부의 환경측정서비스, 도축검사결과 농가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고객중심의 경영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환경측정장비를 이용한 축사환경 개선 지도와 함

께 도축검사결과 분석 정보의 출하농가 제공을 통한 질병예방과 사양관리 지도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역본부 배상호 본부장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봉사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고객중심의 실용경영과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가축질병 청정화 및 안전축산물 공급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내 손안의 전자잡지

농협, 전자잡지 『NH 매거진』 서비스 개시

농협은 올 초부터 스마트기기나 인터넷을 통해 쿠폰으로 30종의 전자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NH 매거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기기의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NH매거진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인터넷 <http://magazine.nonghyup.com> 에 접속한 후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제공되는 전자잡지는 경제·자동차·여성·취미 등 시중에 판매되는 분야별 베스트셀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쿠폰은 농협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과 모바일웹(m.nonghyup.com)에서 진행 중인 쿠폰이벤트에 응모하여 쿠폰 번호를 받을 수 있다.

1월 16일부터는 중앙회 영업점에서 선착순으로 쿠폰을 배부하고, 스마트뱅킹에 가입하거나 상품 가입을 하는 고객에게도 제공되고 있다.